

기록관, 도서관, 박물관의 기능을 융합한 라키비움의 기능 계획*

Functional Planning of Larchiveum that Integrates the Functions of Archives, Libraries and Museums

최 영 실 (Youngsil Choi)**

이 해 영 (Hae-young Rieh)***

초 록

최근 해외에서 대표적인 기록관과 도서관이 통합되거나 협력하는 사례가 늘면서, 기록관, 도서관, 박물관 등 문화정보기관의 통합과 복합정보서비스에 대한 연구와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다. 동시에 국내에서는 지방 기록관의 시설이 열악한 현실에서, 박물관의 콘텐츠 확충을 위한 고민과 도서관 기능의 다양화를 위한 시도는 이들 기관들을 통합한 문화정보센터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기록관과 도서관, 박물관의 기능을 통합한 '라키비움'의 개념이 제시되고, 국내에서도 라키비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실제 라키비움이 현실화된 바는 없으므로 이에 관한 구체적인 실현 방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기록관, 도서관, 박물관의 기능적 특성과 요건을 분석하고, 이를 활용하여 라키비움의 기능 요건을 설정하여 공간 기획을 위한 기능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의 절차를 제안하였다.

ABSTRACT

As the cases of merging and cooperation of archives and libraries increase abroad, research and discussions about integration of complex information services among information centers, such as archives, libraries and museums started to emerge. In a similar vein, the need for integrated cultural information centers are suggested in Korea as the museums encounter the need for expansion of contents, and libraries try to diversify their functions, yet regional public archives has not been established. In this context, the concept of 'Larchiveum(libraries + archives + museums)' was proposed as an alternative that integrates and provides various information functions and resources, and research related to this started to emerge. At present, however, the Larchiveum has not been realized, the specific pathway to realize this kind of institution need to be discussed. This study analyzes the functional characteristics and elements of archives, libraries and museums, and based on these, the functional requirements of the larchiveum are drawn, and are reflected on the Larchiveum's functional planning for space planning in this study.

키워드: 라키비움, 기능요건, 기능계획, 기록관기능, 도서관기능, 박물관기능

Larchiveum, Functional Requirements, Functional Planning, Functions of Libraries,
Functions of Museums, Functions of Archives

* 본 연구는 최영실의 명지대학교 기록정보학 박사학위 논문 "기록관, 도서관, 박물관의 기능 융합에 의거한 라키비움 공간 기획 연구"의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발전시킨 것임.

**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기록정보학 박사(choiyoungsil@hanmail.net) (제1저자)

***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교수(hyrieh@mju.ac.kr) (교신저자)

논문접수일자 : 2012년 11월 30일 논문심사일자 : 2012년 12월 3일 게재확정일자 : 2012년 12월 24일

1. 서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최근 들어 기록관, 도서관, 박물관 등 문화정보기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문서, 도서, 영상 정보 등 다양한 유형의 정보를 가능하면 한 기관에서 이용하고자 한다. 이에 부응하여 국외 몇몇 기록관과 도서관 등은 이미 기관 간 통합을 이루었고, 이러한 추세는 문화정보기관들이 이용자들에 대한 서비스를 우선시하는 고객 중심의 경영을 지향함에 따라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박물관이 난립하고(한겨레 2008), 기록관은 부족하며 공공도서관은 기능의 확대가 요구되고 있어, 이러한 추세가 시사하는 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은 지방의 광역자치단체가 지방 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독립된 기관으로 건립된 사례는 없으며, 반면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박물관은 2011년 말 현재 319개에 이르고 있고(문화체육관광부 2011)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소장 박물관과 콘텐츠는 빈약한 실정이다. 한편 공공도서관들은 다양한 서비스 도입과 지역주민 친화 등을 통해 고객 중심의 경영을 추구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도서관이 독서실의 기능에서 벗어나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국내 정보기관의 상황에 대하여 관련 학계에서는 다양한 연구를 통해 각 기관이 현재와 같이 분산된 문화정보 시설로서의 역할을 넘어선 '지방문화역사센터' 등으로서의 통합적 기능을 갖춘 시설로 확장되어야 함을 제안

해왔다(이영학 2004; 전현수 2004).

이러한 제안들은 최근 세계 곳곳에서 기록관과 도서관 및 박물관들이 서비스 객체와 기관의 유형에 상관없이 다양한 기관들이 협업을 하거나 통합하는 추세와도 맞닿아 있다. 이들 기관 간의 협력은 조직의 완전 통합과 정책적인 부분 협동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예를 들면 캐나다의 LAC(Library and Archives Canada)는 캐나다국립도서관(the National Library of Canada)과 국립기록관(the National Library and Archives of Canada)이 통합된 대표적인 국가 지식정보기관으로 2004년 창설되었으며, 캐나다 정부 산하 도서관 및 기록관과 관련 기관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LAC는 정부와 정부산하 기관의 도서와 기록을 보존하고 활용을 도모하며 캐나다의 문헌유산(documentary heritage)을 전파한다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¹⁾ 현재 LAC는 기능적으로도 다양한 유형의 자료와 기록물을 통합하여 관리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물리적 측면에서도 산하 기관간의 협업을 위해 시설을 공동으로 관리·운영하도록 지원하며 기록물관리에 필요한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2011년 해체되었지만, 영국 박물관도서관기록관위원회(Museum, Libraries and Archives Council, 이하 'MLA')도 2000년에 기존의 박물관미술관위원회(MGC)와 도서관정보위원회(LIC)가 합병되고 기록관 업무를 추가하여, 박물관, 도서관, 기록관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으로 설립되었었다.²⁾ MLA는 10여 년 간 영국의 박물관, 도서관, 기록관의 협동 사업을

1) LAC 사이트 <<http://www.collectionscanada.gc.ca/about-us/012-300-e.html>>.

장려했으며, 영국 뿐 아니라 유럽의 문화정보기관 협력 서비스를 선도한 사례로 주목받았다.

이처럼 도서관과 기록관, 그리고 박물관의 협력이 주목받는 현실에 부응하여, 2008년 윈젯(Winjet)은 기록관, 도서관, 박물관의 기능을 복합적으로 이행하여 이용자에게 다양한 정보자원을 제공할 수 있는 통합형 수집 기관으로 '라키비움' [Larchiveum = 도서관(Library)+기록관(Archives)+박물관(Museum)]을 제안하였다(Kuzyk 2008). 라키비움은 기록관, 도서관, 박물관의 수집 대상인 다양한 매체의 정보자료들을 한꺼번에 집약적으로 수용하여 서비스하는 기관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현대 복합 문화정보기관에 요구되는 조직의 기능 모형이다. 이러한 라키비움 형태의 조직 제안은 현재 국내 지방 기록관과 도서관 및 박물관들의 시설과 관련한 현실에 대해서도 의미 있는 접근 방법을 시사한다. 특히 라키비움은 국내의 문화정보기관이 처한 현실에서 다음의 두 가지 측면에서 필요성을 찾아볼 수 있다. 첫째, 앞서서도 기술된 바와 같이 라키비움은 현재 국내에 기록관 설립이 난항을 겪고 있는 현실에서, 도서관과 박물관의 기능과 콘텐츠의 확장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과 맞닿아 훌륭한 대안 모델이 될 수 있다. 둘째, 기존의 문화정보기관들이 파편적으로 운영해온 기능들을 하나의 기관에 모음으로서 운영 측면에서는 비용 절감과 이용 측면에서는 편의성 제고라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실제로 윈젯의 제안 이후 국내에서도 라키비

움의 복합 기능을 지향하는 기관 건립의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면 광주에 2011년 개관한 아시아문화정보원 준비관은 아카이브와 라이브러리, 뮤지엄의 복합 기능을 포괄하는 2개 층의 규모로 건립되었으며, 세 기관의 복합적 기능에 의거하여 정보 콘텐츠 설계와 자료의 관리 및 이용 동선과 사무 동선을 분리하여 배치하였다. 그리고 2014년 세종시에 건립될 예정인 대통령기록관은 도서관, 전시관, 연구센터 등 다양한 문화시설을 갖춘 독립적인 이용자 친화적인 복합문화기관으로 계획되고 있다. 아울러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서 이례적으로 이용자 편의 서비스 영역을 넓게 산정하여 세분화된 이용자 요구별 정보서비스를 계획하고 있다.³⁾

이와 같이 라키비움은 몇몇 곳에서 그 역할을 지향하는 기관이 추진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국내에서나 해외에서 실제 실행 모델이 제안되거나 구현된 사례는 찾아볼 수 없다. 라키비움이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효율적인 복합 문화정보기관 모델이지만, 개념적이고 이상적인 모델을 벗어나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실행 모델로 제안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라키비움 기능의 근간이 되어야 할 기록관과 도서관 및 박물관의 기능에 대한 이해와 분석, 이들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재설계할 수 있는 유기적인 결합 방법, 그리고 이를 현실화할 수 있는 체계적인 계획과 단계별 실행 절차의 수립이 요구된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본 연

2) MLA에서 맡았던 박물관, 도서관 관련 업무는 영국 예술위원회(Arts Council England)로 이관되었으며, 기록관 관련 제반 사업은 영국 국립기록보존소(The National Archives)에 수렴되었다. MLA 해체 및 기관 사업 이관내용은 다음 사이트에 공고되었다.

〈http://www.mla.gov.uk/news_and_views/press_releases/2011/responsibilities_transfer〉.

3) 2011년 11월 4일 삼우종합건축사무소장 인터뷰와 대통령기록관 사이트 웹 정보 〈<http://www.pa.go.kr/>〉.

구는 기록관, 도서관, 박물관의 복합 기능을 구현한 라키비움의 기능 요건을 설정하여, 라키비움의 기능 계획을 위한 틀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해 먼저 기록관, 도서관, 박물관 각각의 기능들을 확인하고 비교·분석하여 기관별 핵심 기능과 공통 기능을 도출하고, 이를 유기적으로 결합한 라키비움의 기능 요건을 설정하는 일련의 단계로 진행된다.

1.2 선행 연구

2008년 라키비움의 개념이 제시된 이후 해외에서 직접적으로 라키비움이라는 명칭하에 진행된 연구는 없다. 그러나 2000년대 초부터 국내의 기록체계와 관련 학계에서는 기록관과 유사 기관 간 협업과 정보 통합화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기 시작했다.

Rayward(1998)는 처음엔 하나의 기관으로 시작했다가 근세에 와서 서로 다른 매체를 다루면서 분리되었던 기록관, 도서관, 박물관이 모두 공통의 디지털 정보를 다루게 되면서 다시 통합에 대해 논의를 시작해야 함을 강조하고, 그 가능성에 대해 논하였다. 이후 2005년 RLG Members Forum(RLG 2005)과 2006년 Rare Books and Manuscripts Section(RBMS) Conference(Dupont 2007)에서도 도서관과 기록관 및 박물관의 협력과 공유에 대한 방안들이 논의되었다.

Zorich, Waibel, and Erway(2008)는 대학 기관을 중심으로 한 기록관, 도서관, 박물관의 협업 체제 구축을 위한 방법론과 모형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선행 작업을 정리하여 Marty(2008)는 정보화 시대의 기관 간 협력을 위한 이슈를

제시하였고, 디지털 융합(digital convergence)이 기관의 경계를 넘어선 협력 체제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또 Yarrow, Clubb, and Draper(2008)는 세계의 공공도서관, 기록관 및 박물관 간의 협력에 대하여 기관들의 협력 프로그램과 공동 전자 자원, 공동이용과 통합시설 등에 대해 조사를 하고, 우수 사례를 통해 기관 협력이 어떻게 평생 학습과 지역 발전을 지원하고 다양한 문화 및 경제 사업의 파트너가 되어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이용자 서비스를 개선하는지 보여주는 협력 가이드를 제시하였다.

국내에서도 2000년대를 기점으로 기록관과 도서관, 그리고 박물관의 협력과 정보 공유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박재용, 조윤희(2004)는 도서관과 박물관의 풍부한 협력 체제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이를 위한 다양한 모형과 발전 방안을 제시하였다. 김익한(2004)은 기록관리 기반의 통합형 지식관리를 위해 도서관과 기록관의 통합 기관인 LAC를 구현 모델로 들었고, 이후 세종시 건립 예정 대통령기록관의 그랜드디자인은 대통령학 연구센터와 대통령전문도서관의 연구서비스 기능을 포괄하는 기록관으로 계획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김익한 2011).

서혜란(2005a; 2005b)은 이용자 정보요구의 효율적 대응을 위하여 도서관과 기록관의 기관 간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외국의 사례를 검토하여 한국의 협력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조윤희(2008)는 도서관의 문헌 자원, 박물관의 유물 자원, 미술관의 예술품 자원, 기록관의 기록 자원의 통합 관리를 통한 문화정보서비스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정책·제도적 측면, 기

술적 측면, 인적 측면의 문화유산기관 협력 방안을 제시하였다. 최재희(2008)는 기록관과 도서관 및 박물관의 대표적 협력 기구인 영국 MLA의 조직적 특성과 활동을 조사하여 시사점을 분석하였고, 박성진(2008)은 국내 주요 기록관, 도서관, 박물관의 근대 공문서 소장 현황을 검토하여 소장 기관 간 협력 과제를 제기하였다.

한편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 독립 시설로 설립되지 못하는 반면 박물관은 난립하는 현실에 대한 대안으로 학계에서는 문화정보기관 시설의 공유 방안이 제시되었다. 전현수(2004)는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 해당 지역의 광범위한 역사적 문화적 요구에 부합하는 열린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고, 이영학(2010)도 지방기록관이 지방의 특성을 반영하면서 역사문화센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박찬승(2000)과 지수결(2009)은 각각 일본 아시오시 자료관과 미국 네바다주 아카이브의 사례를 통해 지역 기록관의 통합적인 역사문화센터로서의 역할을 제시하였다. 박물관 분야에서도 배진희(2004)는 지역박물관이 지역연구의 실천의 장이자 지역의 문화센터, 그리고 관광자원으로 정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용원(2007)은 도서관에서도 새로운 매체에 대한 접근과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프로그램과 기능상의 변화가 주요한 사항으로 대두되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이 국내외 기록관, 도서관, 박물관들의 기관 간 협력과 자원 공유에 대한 필요성은 여러 연구를 통해 꾸준히 제기되었으며, 2008년 '라키비움'의 개념이 제시된 이래 국내에서도 라키비움의 개념을 차용한 연구 영역과 학술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다.

먼저 국립국악원(2010)은 국악아카이브를 구

축하기 위해서 라키비움의 개념을 반영하여, 기존의 아카이브, 자료실, 박물관으로 분산되었던 '조직별 직무 설계'를 '업무 프로세스 중심의 직무 설계'로 재조정하여 제시하였다. 여기서는 국악아카이브의 구축을 위하여 라키비움과 같은 통합적 기능에 근거한 조직과 공간의 필요성을 논하였다.

국회도서관(2010)은 도서관과 기록관, 박물관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선진 사례를 들어 이들 기관의 기능에 대한 근본적 재설계를 바탕으로 한 통합 운영 방안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또한 차후 라키비움의 법적 기반이 마련되면 캐나다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도서와 기록물 및 박물관이 유기적으로 관리·보존·활용되는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음을 기술하였다. 이어 이승휘(2010)는 국회도서관, 국회기록보존소, 헌정기념관의 지적 관리와 이용의 통합을 통한 국회 라키비움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아시아문화정보원(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2010a)은 아시아 문화의 다양성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열린 정보기관의 설립을 위하여 기록관, 도서관, 미술관, 교육시설의 기능을 통해 라키비움의 개념을 구현하는 멀티미디어 복합프로그래밍 형식의 공간 비전을 제시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공간별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였다.

또 국립예술자료원(2010)은 예술자료 관리의 전문화를 위하여 다양한 유형의 자료를 관리하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공간 측면에서는 복합 예술 향유공간을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라키비움 방식의 공간을 지향하면서, 아카이브의 기능을 반영한 자료 보존 공간, 그리고 박물관과 도서관의 열람과 전시 기능을 혼합한 전시관을 제

안하였다.

한국기상기후아카데미(2010)도 기상역사에 관한 원자료와 연구를 지원하며 수집된 자료를 활용한 교육을 제공하고 전시할 수 있는, 도서관과 박물관, 기록관이 혼합된 형태인 라키비움의 설립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병무청(2010)도 병무행정 기록전시관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관의 장기적인 지향을 라키비움으로 설정하고, 실행 계획 수립에 있어 공간구성, 운영방식, 전시형태, 서비스 등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여 제시하였다.

조정임(2011)은 대중음악기록관의 구축에 있어 이용자 간의 자유로운 소통과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유기적으로 서비스하기 위해 기록관과 도서관, 박물관의 기능을 복합한 라키비움을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기술하였다. 또한 기록관의 기능을 중심으로 도서관의 도서수집, 열람 및 검색기능과 박물관의 보존 및 전시와 교육기능의 강점을 차용해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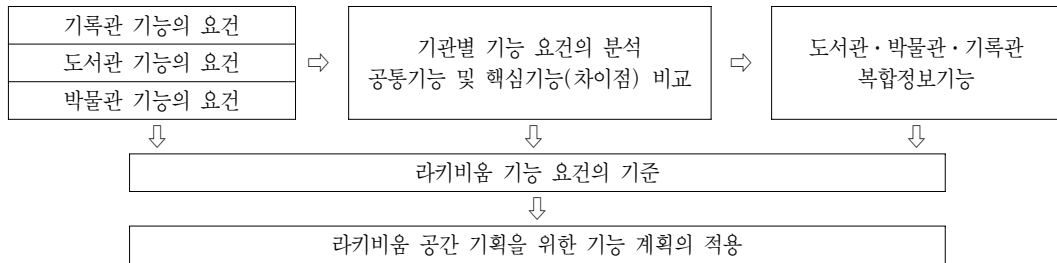
김유승(2012a)은 국회도서관과 헌정기념관과 국회기록보존소의 협력방안에 대해 협력 유형들을 검토하고 해외 협력 사례를 제시한 후 국회의 라키비움 구성에 대한 전망으로 풀어내고 그 구성의 가능성을 타진하였다. 이어 이들 국회 기억기관의 연혁과 협력에 있어서의 장애요인을 검토하고 통합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였으며, 국회 라키비움의 설립에 이르는 단계적 전략을 제시하였다(김유승 2012b). 최영실(2012)은 기록관, 도서관, 박물관의 복합 기능과 기관별 독립적인 기능을 분석하여 라키비움의 공간 기능 요건을 도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기관별 공간 기능을 유기적으로 조합하는 라키비움의 공간 기획 절차를 제안하였다.

라키비움과 관련된 연구는 초기에는 통합적 기록관리 방법론을 중심으로 제안되다가, 차츰 문화예술, 기상, 행정기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통섭(統攝)적이고 대안적인 문화정보기관에 대한 제안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를 보다 현실화하기 위한 전문적인 연구 방법론으로 기능과 조직 및 공간 등 인프라 구축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흡하므로 이러한 필요성에 기반하여 본 연구가 진행되었다.

2. 기록관, 도서관, 박물관의 기능 요건의 비교·분석

이 장에서는 기록관, 도서관, 박물관의 기관별 기능 요건을 비교·분석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고, 차후 라키비움의 기능 요건에 유기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 과정은 <그림 1>과 같이 제시될 수 있다.

기록관, 도서관, 박물관은 모두 소속 사회와 이용자를 위하여 문화적 가치가 있는 정보물을 선별적으로 수집하고 체계적인 관리 절차와 장기 보존을 통하여 일반 대중에게 열람, 전시, 교육 등을 제공함으로써 후대에 문화유산을 계승하는 사회적 기구의 역할을 이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들 기관은 업무 형태와 절차, 대상 정보자원의 종류 및 처리 방법에 있어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으나, 또 세부적인 항목을 살펴보면 공통적인 업무 요소 또한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는 기록관, 도서관, 박물관의 기능을 비교하고 각 기관 고유의 핵심 업무와 공통 업무를 분석하여 라키비움의 공간 기획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삼고자 한다.



〈그림 1〉 라키비움의 기능 계획 방법론

먼저 기록관의 업무는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기록을 보존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기록물 관리 영역과 이용자의 문화적 정보 요구와 이용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도구를 제공하는 서비스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이 가운데 기록물 관리 영역은 기록을 조사, 수집(생산 및 입수), 등록, 평가, 보존 및 폐기, 정보서비스의 기능을 포괄하는 기록관 고유의 기본 기능으로, 라키비움의 업무 기능에 반영해야 할 업무이다.

도서관의 업무는 도서 자료의 수집, 정리, 활용을 도모하는 업무 영역과 도서관의 업무를 지원하고 평가하며 계획을 수립하는 경영 지원 영역, 그리고 도서 자료와 정보에 대한 온라인 검색과 접근을 주도하는 다양한 서비스 기능을 포괄하여 교육과 연구를 지원하는 사회문화적 영역을 포함한다. 이 가운데 도서 자료를 수집하여 이용자가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직화하고 활용을 지원하는 기능은 도서관의 고유 업무 영역이다.

박물관의 업무는 크게 학예 연구 영역(수집, 보존, 조사·연구), 문화·교육 서비스 영역(전시, 교육), 경영 영역(행정 및 운영·서비스 지원)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 가운데 학예 연구 영역과 전시 및 교육 등 이용자 대상의 문화·

교육 서비스 영역은 박물관의 핵심 업무이다. 특히 최근 들어 박물관은 어린이, 교사, 전문가, 노인, 다문화인, 가족 등 세분화된 이용자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다양한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폭 넓은 이용층을 확장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기록관, 도서관, 박물관 각각의 고유 업무 기능 외에 최근 이들 정보기관들이 지향하고 있는 복합문화정보의 다양한 확장 서비스를 비교·분석하면 유사한 특징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기록관, 도서관, 박물관의 확장 서비스는 기관별 특성과 전반적인 공통된 특성을 비교·분석하여 라키비움의 업무 기능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고려하여 기록관, 도서관, 박물관의 문화정보 제공을 위한 확장 서비스를 비교·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기록관의 문화적 영역을 강화한 기능은 주로 열람, 참고봉사, 복사 등의 전통적 서비스와 출판, 워크샵, 교육 세미나 등 각종 이용 확장 서비스를 중심으로 이행되고 있다. 특히 기록학계에서는 지역의 특색과 생활문화를 포괄하는 지방기록물 관리기관의 공동 설치에 대한 방안(안자영 2008)과 학생, 교육자, 연구자, 지역인 등 다양한 이용자 세분화에 기반한 기록정보서비스의 방안(서은경 외 2006)이 논의되고 있으며, 기록물 활성화를 위한 전시, 출판 등 다양한

확장서비스에 대한 연구(정현우 2010; 장혜란, 이명희 2008)도 진행되었다. 또한 도서관과 박물관이 관련 시설과의 연계를 통하여 복합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연구와 시도도 이어지고 있다. 예를 들면, 주제를 선정하여 그에 적합한 콘텐츠를 박물관 견학을 통하여 독서 프로그램으로 제공하는 등 상호 보완의 프로그램 개발 방안도 모색되었다(황금숙 2008) (<표 1> 참조).

이제까지 살펴본 기록관, 도서관, 박물관의 문화적 복합 서비스 영역에서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첫째, 세 기관 모두 지역 문화의 정체성을 제고하고

문화적 거점으로서의 시설을 지향하며, 둘째, 다양한 이용자를 세분화하여 교사·학생, 어린이·가족, 전문가(연구자·창작자), 지역 주민, 노인, 다문화 가정,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변별성 있는 지식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 셋째, 최근 이용자의 높아진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영화 상영, 공연 등 다양한 문화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넷째, 기관의 홍보와 이용자 확대를 위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는 각종 시설을 운용하는 등 다양한 이용확장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기록관, 도서관, 박물관의 전통적 업무 기능과 문화 확장

<표 1> 도서관과 박물관, 유사기관과의 연계 운영 프로그램 사례

도서관-박물관(혹은 미술관) 연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사례		
범주	주제	내용
이동식 박물관 프로그램	문화재청 국립해양유물전시관 '700년 전의 약속, 신안해저 보물선'	신안 일대 출토 유물에 대한 전시회를 공동도서관에 전시하고 관련 자료를 읽는 기획 제공
	목포 자연사 박물관 '찾아가는 이동박물관 교실'	자연사 관련 유물들을 소외지역 공동도서관에 전시하고 교육
테마형독서-견학프로그램	'허벅과 제주질그릇' 독서 프로그램	특별 전시회 테마와 관련된 독서 프로그램을 진행
문화유산 독서 프로그램	왕조실록 독서 프로그램	왕조실록 문서 견학과 번역 등 독서 행사 진행
전시회를 활용한 독서 프로그램	그림으로 보는 책 세상	전시회에 전시된 그림들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관련 책들에 대한 독서 프로그램을 진행
책과 그림의 상호작용 프로그램	그림으로 변한 동화책 이야기	책과 그림을 넘나들면서 아이들에게 다양한 상호작용 교육을 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
도서관-미술관 공동 기획 프로그램	책과 그림전	도서관과 미술관이 사전에 공동 협의해서 책과 그림을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제공
도서관-공연장 연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사례		
범주	주제	내용
구인극 프로그램	책 읽어주는 배우들 프로그램	대표적인 어린이 서적들을 연극 형식으로 구연하는 프로그램 개발
드라마 트루기 독서 프로그램	연극 대본을 책으로 읽기 프로그램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공연 대본을 함께 읽게 하고 극적인 형태를 가미하여 연극적 상황을 연출하는 프로그램
공연 정보 텍스트 분석	공연 정보를 활용한 문화교육 프로그램	공연과 관련 다양한 정보들을 분석하고 공연 자료들을 분류하여 DB화하는 작업
도서관-문화유산 연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사례		
범주	주제	내용
문화유산 답사로 읽는 책 프로그램	'우리문화의 수수께끼' 문화현장답사 프로그램	주강현의 저서를 읽고 관련 콘텐츠에 대한 문화유산 답사 프로그램을 진행
고문서 읽기 프로그램	조선왕조 의궤 읽기 프로그램	조선왕조의 생활 일대기가 적혀있는 의궤를 일반인들이 읽기 쉽게 번역하여 독서프로그램을 진행

출처: 황금숙(2008), 90-93.

서비스 현황과 최근 추세를 반영하는 이들 기관의 유사 기능을 정리하면 <표 2>⁴⁾와 같다.

<표 2> 기록관, 도서관, 박물관 기능의 비교·분석

업무 비교		기록관	도서관	박물관
업무 기능	기본 기능	- 기록물의 장기 보존을 가능하게 하는 환경에서 기록물을 수집·관리하는 기능	- 도서 자료의 수집, 정리, 봉사에 이르는 전반 업무 기능	- 문화유산의 연구·수집, 분류 및 정리, 등록, 전시 및 교육 등에 이르는 기능
서비스 기능	지식 정보	- 기록물을 활용하여 재가공하거나 창출된 기록정보콘텐츠 제공 - 강좌, 세미나, 학습매체 제작, 교수안 제작, 기록물 탐색 대행 등 지식정보 지원 서비스 제공	- 연구 상담 및 지원과 도서관 이용 교육 프로그램 및 정보화 교육 등 도서관이용프로그램 제공 - 지식정보전문가의 안내서비스와 지식문화콘텐츠 개발 및 제공	- 박물관 자원 활용 지식정보 제공 및 관련 문화 교육 제공 - 박물관 자원 연구 조사 및 보존처리 등 학예연구 - 전시 및 문화콘텐츠 개발
	지역 문화	- 지방 향토 문화에 근거한 지방기록물 관리기관의 다양한 기록정보 서비스 제공 - 지역기록물 기반의 지역정보 제공	- 지역의 문화행사 개최 등 지역 문화기반시설 제공 - 지역행정정보 처리 등 지역주민 생활편의 행정 서비스 병행 제공 - 지역관련 지식콘텐츠 개발 및 제공	- 지역 문화유산기관과의 연대 정보서비스 제공 등 네트워크 - 지역문화유산 답사, 지역사 강좌, 지역 문화재 관련 현장 견학 프로그램 등 제공 - 지역 향토 문화정보서비스 제공
	문화 향유	- 기록 관련 문화적 실연 서비스 제공 - 기록관련 영상물 상영 및 전시 - 기록정보콘텐츠 체험 서비스 제공(기록물 제작 참여 등) - 전시와 기록물 관련 상품 판매	- 문화 예술 관련 공연 및 전시 서비스 제공 - 토론회, 좌담회, 창작 및 비평활동 등 공동체 활동	- 도서관, 문화유산기관 등 연관 기관과의 연계적 문화·교육 프로그램 제공 - 문화콘텐츠 제작 및 체험 - 자원봉사 참여(문화재 정리, 안내)
	이용자 세분화	- 학생, 교육자, 연구자, 일반 이용자 등으로 구분하여 학습지원, 연구지원, 특정주제서비스 등 제공 - 장애인, 노약자 등 특수 이용자 대상 시설 활용 등 편의 서비스 제공	- 어린이, 노인, 교사, 지역 주민, 다문화 가족, 일반 가족, 직장인 등 다양한 이용층 대상 독서 프로그램과 문화 행사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 다국어 정보서비스 제공	- 일반 성인, 아동 및 청소년, 학교 연계, 교사, 대학생, 가족, 직장인, 전문가, 다문화인 대상 문화·교육 프로그램 제공 - 다국어 통역 서비스 제공
	확장 서비스	- 기록물가이드 이용교육 안내서비스 및 참고서비스 제공 - 단체 견학서비스 제공 - 기념품 판매 - 각종 이용 편의 시설 제공	- 이용 안내 제공 및 단체 견학 - 검색·열람·복사·대출 참고서비스 제공 - 뉴스레터 등 출판서비스 제공 - 기념품 및 관련 도서 판매 제공 - 각종 이용 편의 시설 제공	- 박물관 이용 안내서비스 제공 - 도슨트 등 전시 안내 서비스 제공 - 기념품과 전시 관련 도록 판매 - 전시 안내 리플릿, 도록 등 출판 - 기념품 판매와 이용편의 시설 제공
유사점 [최근추세]	지식정보를 통한 교육 기능 증대		- 가치있는 정보를 후세에 전달해주는 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화 -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정보를 다루는 통제 기능 증진 - 다양한 지식정보콘텐츠 개발 및 제공	
	복합문화정보의 제공		- 기록관, 도서관, 박물관의 한정적 자원과 업무를 교차한 복합 정보 제공	
	지역민 등 문화적 이용자 대상 범위의 확대 및 세분화		- 이용자 세분화에 따른 다양한 이용 편의 제공과 지식정보 제공 - 지역의 문화 촉매제 역할과 지역민 대상의 다양한 문화 편의 서비스 제공	
	문화 영리사업 병행 등 경영지원		- 기념품점, 카페테리아, 식당, 서점 운영 등 관내 문화적 영리 사업 제공	
문화적 이용편의시설의 제공		- 공원, 휴게실, 수유실, 로비, 오픈라이브러리 등 이용편의시설과 관내 정보시설의 접목과 확장		

4) 세 기관의 기능은 각 기관의 기능에 관한 법제와 문헌 및 연구 용역 결과를 참조하였다. 먼저 기록관 기능은 기록 관리 프로세스 영역과 문화적 영역으로 나누었고, 기록관리 프로세스 영역에 참고한 문헌은 다음과 같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장 제3조(정의); 전홍필(2009); 김형석(2008); Cox(1992); 기록관의 문화적 기능 영역에 참고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2010b); 국립국악원(2010); 서은경, 정경희, 최상희(2006); 장혜란, 이명희(2008); Pugh(2002); International Council on Archives(ICA)(2002); 도서관의 기능은 다음의 문헌을 참고하였다: 한국도서관협회 도서관편람 편찬위원회(2009); 권남익(1996); 한국문화정책개발연구원(1995); 김홍렬(2004); 윤희운(2008); 이승근(2001); 장우권(2009); 정종기(2001); 박물관 기능은 다음의 문헌을 참고하였다; 김진호(2009); 이보아(2002); Ambrose & Paine(2001); 박형식(2010).

3. 라키비움 기능 요건 분석과 기능 계획

본 장에서는 라키비움의 기능 요건을 분석하고 기능을 계획하는 방법을 다룬다. 이를 위해 먼저 기록관, 도서관, 박물관의 기능 요건들을 비교·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라키비움의 업무와 서비스 관련 기능 요건을 설정하고, 이어 라키비움의 통합 업무 기능과 세부 기능을 업무 프로세스와 함께 제시한다. 이 절차는 향후 라키비움 혹은 유사형 복합문화정보기관의 신설이나 통합 등에서 공간 기획에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3.1 기능 분석의 단계

3.1.1 업무 기능의 분석⁵⁾

이 단계에서는 기록관, 도서관, 박물관의 업무 기능을 분석하고 통합적인 라키비움의 기능 계획에 반영할 업무 기능 요건을 도출한다. 먼저 앞 장에서 비교한 기록관, 도서관, 박물관의 업무 기능 분석 결과를 참조하여 라키비움에 핵심적으로 요구되는 기능을 도출해보면, 기록관의 기록관리 및 보존 기능과 도서관의 도서 자료 수집, 정리 및 참고봉사 기능, 그리고 박물관의 보존과 전시 및 교육 기능 등을 들 수 있다.

라키비움의 기능 계획의 성패는 기록관, 도서관, 박물관에서 단일하게 이행해 온 기능들을

하나의 기관에서 얼마만큼 조화롭게 융합하는가에 달려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록관, 도서관, 박물관의 핵심적인 업무 기능은 기존의 전문적 업무 수행 방식에 따라 이행할 수 있는 요건을 가능하면 그대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즉, 기록관과 도서관, 박물관의 고유 업무 기능을 복합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조직과 공간, 설비 등의 인프라를 구비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기록관, 도서관, 박물관에서 각기 독립적으로 관리해 온 고유의 자원을 하나의 기관에서 한꺼번에 통합적으로 수집하여 관리·보존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들이 요구하는 보존의 공간과 기술의 조건을 충족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각 기관이 소장하고 있는 자원에 대한 전문적 이해가 바탕이 된 업무 기능 요건의 파악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기록관의 모기관이나 연관 조직의 기능 및 주제와 관련 있는 각종 매체별 기록관리 절차의 이행을 위한 시설 및 장비와 전문 인력; 도서관의 지식정보로서 가치 있는 정보자료의 효율적인 수집과 정리 및 열람 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 및 장비와 전문 인력; 박물관의 매체별 문화유산의 장기보존과 전시와 교육을 위한 적합한 시설 및 장비와 전문 인력이 그것이다. <표 3>은 기록관, 도서관, 박물관의 자원과 업무를 복합적으로 라키비움에 수렴하기 위한 기록관·도서관·박물관의 업무 기능의 요건을 정리한 것이다.

5) 업무 기능의 분석 절차는 건립 대상 라키비움의 설립 목적과 문화적·지역적·물리적 환경과 소장자원의 현황 등 개별적 성향과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진행될 수 있다. 예컨대 박물관을 중심으로 한 라키비움의 업무 기능은 박물관의 전시와 특정한 박물관 매체 자원의 보존 기능의 요구 조건을 중심으로 분석할 수 있고, 지역성이 강화된 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라키비움의 경우에는 지역 행정과 문화적 기능을 병행하는 지역 정보도서관의 기능을 중심으로 분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업무 기능의 분석은 기록관의 기록관리 절차를 중심으로 기록관, 도서관, 박물관의 기능을 균형적으로 수렴한 라키비움의 기능 요건을 파악하도록 해준다.

〈표 3〉 라키비움의 업무 기능 요건의 분석

업무 비교	기록관	도서관	박물관
대상 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기관이나 연관 조직의 기능 및 주제와 관련 있는 각종 기록물 • 인쇄문서(일반문서, 간행물, 문서, 도면/지도류, 귀중문서, 팸플린, 리플릿, 엽서 등) • 시청각자원(컬러필름, 영화필름, 마이크로 필름, 오디오 매체, 비디오 매체 등) • 디지털자원 • 박물관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적 가치가 있는 다양한 매체의 정보자료 • 인쇄자료(출판물, 소책자, 회람 등) • 시청각자원 • 디지털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사적 가치가 있는 다양한 매체의 문화유산 자원 • 매체별 박물관자원 • 시청각자원 • 인쇄자료
핵심 업무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록물 수집, 관리, 활용에 이르는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 자료의 수집과 정리 및 참고 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체별 박물관 자원의 조사, 학예 연구, 보존 처리 및 전시 - 복합문화교육프로그램 이행
↓ 라키비움 업무 기능 요건의 적용 요소 ↓			
	기록관	도서관	박물관
라키비움 업무 기능 이행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록물 수집, 분류, 보존, 활용, 평가의 전반적인 기록관리 절차 이행을 위한 시설 및 장비와 전문 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 자료의 수집과 정리를 위한 시설 및 장비와 전문 인력 - 도서 자료의 효율적인 열람 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 및 장비와 참고 봉사 전문 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체별 박물관 자원의 장기보존 기준에 적합한 시설 및 장비와 전문 인력 - 박물관 자원의 전시와 교육 등 다양한 복합문화교육프로그램을 위한 시설 및 장비와 전문 인력

3.1.2 서비스 기능의 분석

이 단계에서는 기록관, 도서관, 박물관에서 분산적으로 이행해온 이용자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접근성과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이용자에게 보다 더 다양한 문화 정보와 활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 측면에서 라키비움의 기능 요건을 분석한다. 앞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앞의 〈표 2〉 참조), 기록관, 도서관, 박물관의 서비스 기능은 정보자원을 교육이나 활용 프로그램, 콘텐츠 등으로 제공하고 연구와 창작을 도모하는 '지식정보 진흥 기능'과 다양한 이용자의 세분화된 요구에 부응하여 소속 사회와 지역을 대상으로 문화 체험과 이용 편의를 제공하는 '문화적 이용확장서비스'의 두 가지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문화적 이용확장서

비스 기능은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먼저 지역 주민과의 교류를 확대하고 지역의 문화적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이행하는 등 지역의 문화 촉매체로서의 기능;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이벤트 등 다양한 문화 활동을 경험해보는 기능을 제공하는 문화체험장으로서의 기능; 학생·교사, 어린이·가족, 다문화가정, 지역주민 등 다양한 이용자를 세분화하여 그들의 요구에 대응하는 기능; 리플릿·인터넷 등 홍보 도구를 통하여 기관을 알리고 카페 식당, 오픈플라자 등 이용편의 시설을 제공하는 홍보 및 확장서비스 기능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처럼 기록관, 도서관, 박물관이 이행해 온 이용자 서비스의 기능은 라키비움의 서비스 기능을 계획할 때 영역별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표 4〉는

〈표 4〉 라키비움의 서비스 기능 요건의 분석

라키비움 서비스 기능 이행 요건		
지식 정보 진흥	전달·교육	- 정보기관 혹은 자원 이용을 안내하거나 교육하는 프로그램 제공(예: 안내가이드, 도슨트 등) - 정보화 교육과 e-러닝센터 등의 인터페이스 구축 및 교육 제공 - 오프라인 각종 교육과 정보 전달을 위한 담당 전문 인력을 위한 공간·시설 인프라(예: 도움누리터, 정보화교육실, 강의실, 세미나실 등)
	연구·창작	- 연구자들의 요구를 파악하여 지원하는 서비스(지원 상담, 협동연구, 인터넷 네트워킹 등) 관련 인프라(연구지원실, 전문연구실을 위한 시설 및 장비 등) - 자원을 콘텐츠로 재가공하거나 새롭게 개발·제공할 수 있는 기술 서비스 및 관련 인프라 - 이용자 참여 콘텐츠나 자원 제작을 지원하는 서비스 및 관련 인프라
문화적 이용 확장 서비스	지역문화축매	- 지역의 행사와 행정 등 정보를 공유하고 지역행정기관, 단체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 - 지역의 향토 문화를 전시, 도록, 문헌, 인터넷 정보물 등으로 콘텐츠화할 수 있는 서비스(향토문화정보물, 콘텐츠 제작)와 관련 인프라(전시실, 콘텐츠관 등) - 지역 커뮤니티 도모와 행사를 위한 공간 인프라(회합실 등)
	문화체험	- 공연, 영상물 상영, 각종 체험 제공 등 각종 문화적 체험을 제공하기 위한 기획, 경영지원 서비스 관련 인프라
	이용자 세분화	- 세분화된 이용자 요구를 파악하여 정보 서비스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 기록관, 도서관, 박물관의 이용자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서비스 및 관련 인프라 - 지역, 단체, 기관 등 네트워킹 기관의 요구를 파악하여 대응할 수 있는 네트워크 기술력
	홍보 및 확장서비스	- 기념품점, 카페테리아, 식당, 서점 운영 등 관내 문화적 영리 사업 운영을 위한 경영지원 - 이용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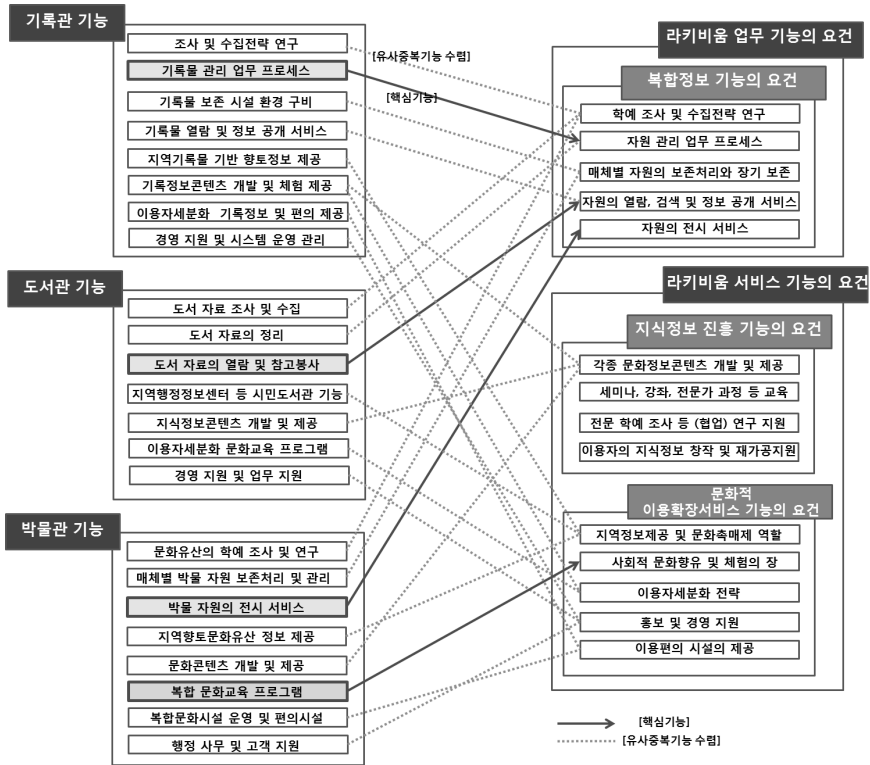
기록관, 도서관, 박물관의 이용자 서비스 기능을 비교·분석하여 라키비움의 '지식정보의 진흥'과 '문화적 이용확장서비스'로 범주화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을 정리한 것이다.

3.1.3 기능 요건의 설정

이 단계에서는 앞에서 라키비움의 기능 요건으로 도출한 라키비움의 '기록관·도서관·박물관의 복합정보기능', '지식정보의 진흥', '문화적 이용확장서비스' 등을 통합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조건과 이에 상응하는 기능 요건을 도출한다. 즉 이들 각 기관별 핵심 기능

은 라키비움의 기능 계획에 고유 요구 조건으로 적용하고, 이 기관들의 중복 기능은 라키비움의 전체 기능 계획에 유기적으로 결합한다. 우선 라키비움의 핵심적인 업무 기능의 요건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기록관, 도서관, 박물관의 각 핵심 기능을 수렴하였다.

그러나 각 기관의 핵심 기능이 다른 기관의 기능과 중복될 경우에는 핵심 기능에 유입시켰다. 예컨대 기록관의 기록물 정보 공개 및 열람 서비스는 도서관의 열람 서비스의 핵심 기능에 수렴하고, 기록관의 기록물 장기 보존과 박물관의 박물관 자원의 보존 기능은 서로 유기적으로 수렴하여 라키비움의 소장 자원 매체 보존 기능



〈그림 2〉 라키비움의 기능 요건의 설정

에 적용하도록 한다. 핵심 기능과 중복 기능이 라키비움에서 하나의 기능으로 통합될 때에는 핵심 기능이 요구하는 시설, 장비 및 인력 등에 기반하고, 중복 기능은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라키비움에 적절하게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라키비움의 서비스 기능의 요건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기록관, 도서관, 박물관에서 이행하고 있는 이용자 서비스의 특성을 파악하여 지식정보 진흥의 기능과 문화적 이용확장서비스의 기능으로 범주화하고, 이에 상응하는 기능 요건을 파악한다. 이 과정은 〈그림 2〉와 같다.⁶⁾

3.2 기능 계획의 단계

이 단계는 라키비움의 기능 요건을 기반으로 라키비움의 기능을 총괄적으로 설계하는 단계다. 이를 위하여 먼저 기록관, 도서관, 박물관의 경영 지원, 관리 운영 및 시설 유지 등을 하나의 기능으로 통합하여 라키비움의 운영 전략을 기획하고 경영하는 ‘기획·운영’의 기능으로 설정하였다. 이를 통해서 라키비움의 전반적인 운영과 경영활동을 지원함과 동시에 라키비움의 업무 기능과 서비스 기능을 모두 지원하도록 하

6) 도표에 제시된 과정은 일반적인 라키비움의 기능 요건을 수립할 경우에 적용 가능하며, 이를 모든 라키비움에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 예를 들어 특정 기관을 중심으로 라키비움을 건립할 경우에는 특정 매체와 주제에 관한 보존 기능의 요건과 전문가를 중심으로 기능 요건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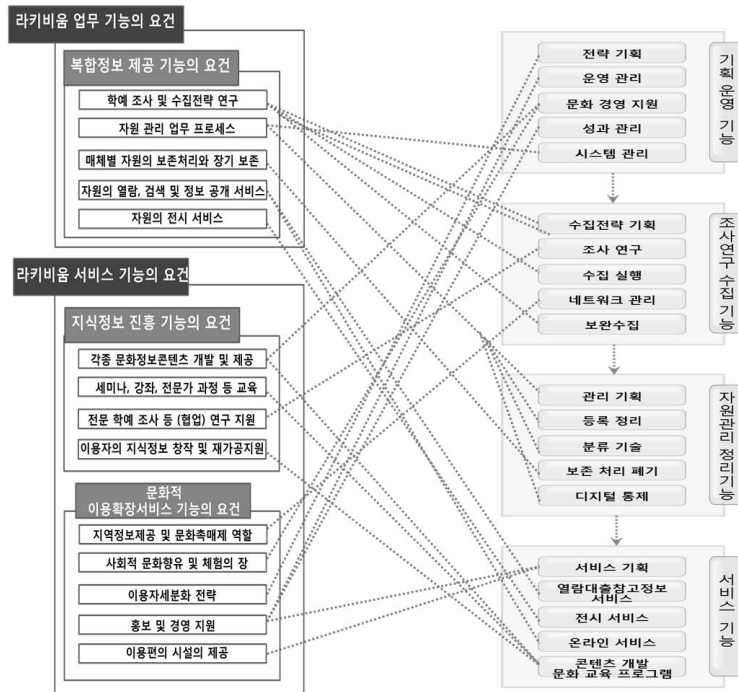
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기록관과 도서관 및 박물관의 복합정보 제공의 기능 요건을 적용하고 업무 기능을 통합하고 재정리하여 라키비움의 '조사연구·수집'과 '자원정리·관리' 기능으로 설정하였다. 이 과정에서는 다른 기관의 기능 가운데 핵심 기능과 유사한 기능이 있을 경우 이들을 핵심 기능으로 흡수시켜 수렴하도록 한다. 이는 기록관, 도서관, 박물관이 분산적으로 운용하였던 자원을 통합적으로 수집, 정리 및 관리하는 기능을 포괄한다.

마지막으로 앞서 라키비움의 기능 요건으로 제시한 지식정보의 진흥 기능, 지역·사회의 문

화적 이용확장서비스 기능 요소를 분석하고 반영하여 '서비스' 기능으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라키비움의 각 기능 요건을 반영하여 라키비움의 전체 기능 요건을 수렴한 체계는 <그림 3>⁷⁾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즉 기획·운영 기능은 전략기획, 운영관리, 문화경영지원, 성과관리 및 시스템관리 기능 등을 포함할 수 있으며, 조사연구·수집 기능은 수집전략기획, 조사연구, 수집실행, 네트워크관리 및 보완수집 기능으로 구성할 수 있다. 자원정리·관리 기능은 관리기획, 등록·정리, 분류·기술, 보존·처리·폐기 및 디지털 통제 기능으로 구성할 수 있고, 서비스기능은 서



<그림 3> 라키비움 업무 기능 구성도의 기능 요건 수렴 체계

7) 다음 문헌을 참고하여 업무 기능 계획을 구성하였다. - 국립국악원(2010);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2010b); 한국도서관협회 도서관관람 편찬위원회(2009); 나원경(2010); 정동열, 조찬식(2007).

비스기획, 열람·대출·참고·정보 서비스, 전시 서비스, 온라인서비스, 콘텐츠개발 및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포함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설정한 라키비움의 세부 기능을 통해 이루어져야할 업무들을 정리한 내용은 <표 5>8)에 상세히 제시하였다.

<표 5> 라키비움의 전체 업무 프로세스와 세부 기능의 설명

기능명	기능 내용 설명
기획·운영	- 라키비움 전반의 업무가 운영될 수 있도록 기획을 담당하고, 고객과 네트워크 기관을 관리하여 경영 지원을 하며 시스템 구축과 유지 운영을 이행
전략기획	- 라키비움의 유지와 발전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전략을 기획 - 중장기 로드맵과 단기성 사업 계획 및 기술력 강화를 위한 전략 구축
운영관리	- 라키비움 각 기능 지원을 위한 관리 규정 및 매뉴얼 운영 - 관련 기관과의 네트워크 지원과 행정 업무 이행 - 시설 관리 및 책임자와 인력 관리
문화경영지원	- 재무 관리 및 문화 홍보 마케팅 지원 - 복합문화시설 관리 및 복합문화 행사 기획·이행 - 문화 영리 사업 경영 지원 및 각종 이용확장서비스 기획·지원
성과관리	- 조직·인사 관리 및 고객 관리 - 업무 성과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이행 및 개선 사항 도출과 향후 적용 - 업무 평가 이후 조직의 부서 및 담당자에게 결과·개선기회 통보 및 인사 적용
시스템관리	- 자원의 DB구축 및 관리와 백업과 보안 관리 이행 - 정보관리시스템의 관리 운용 수행
조사연구·수집	- 자원의 조사 연구 및 네트워크를 통해 수집 대상 자원을 파악하여 수집을 기획하고 실행
수집전략기획	- 자원 수집을 위한 방향성 제시 및 전략 기획 이행 - 라키비움 내외부의 자원의 조사 자료에 기반하여 수집 대상 범위 결정
조사연구	- 자원 박물관과 수집을 위한 대상 조사 이행 - 자원의 리드개발 등 접촉 우선 순위 결정 및 소장자 접촉활동과 현지조사
수집실행	- 수집계획에 따라 실제 자원 수집 실행 및 저작권 이슈 관리 - 자원 이송 입수 및 소독처리, 검수와 가등록, 임시수장고 정리
네트워크관리	- 네트워크 대상 기관 발굴, 협약 체결 및 지속적인 교류 활동 및 현황 조사
보완수집	- 보유 자원을 분석하여 다큐멘테이션 전략 수립 및 부족 자원의 보완 추가 수집
자원정리·관리	- 수집된 자원을 등록, 분류·기술, 보존함으로써 자원에 대하여 지적·물리적 통제를 이행하여 이용자에게 서비스할 수 있는 상태로 보존
관리기획	- 전체 관리 대상 자원의 목록에서 처리 우선 순위를 결정하여 연간/월별 관리계획 수립
등록·정리	- 가등록된 자원을 처리 프로세스에 따라 보존 관리될 수 있도록 정식으로 등록 및 식별 - 검수, 상태평가, 등록, 보존용품 재편성, 라벨링, 수장고 배치
분류·기술	- 수집된 자원을 조직화하여 지적 통제를 하고 정보를 기술 - 분류·기술 대상 선정 및 작업 수행·검수, 분류체계 및 메타데이터 관리
보존·처리·폐기	- 정리된 자원의 장기보존과 활용이 가능하도록 매체별 자원의 보존 환경 구축 및 보존 처리 - 폐기 대상 자원 선별 및 폐기 절차 이행
디지털 통제	- 아날로그 형태 자원의 디지털화 수행 - 디지털 자원의 장기보존을 위한 환경과 시설 및 장비 구축과 스토리지 관리 - 디지털 정보콘텐츠 개발과 제공에 필요한 워크 플로우 개발 및 인력 관리 - 디지털 자원 처분 내용에 따라 이관, 폐기, 반환 등 처분을 실행

8) 다음 문헌을 참고했다. - 국립국악원(2010);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2010b).

기능명	기능 내용 설명	
서비스	- 관련 정보 서비스의 트렌드와 최근 이용자 요구를 연구하고 이에 기반하여 온, 오프라인을 포괄하는 정보서비스 기획 및 제공	- 온, 오프라인을 포괄하는 정보서비스
서비스기획		- 이용자 요구 분석 및 온, 오프라인 서비스의 총괄 기획 - 워크플로우 개발 및 성과 평가 이행
열람·대출·참고·정보 서비스		- 자원 열람의 공개 여부와 신청자의 접근 권한 검토 및 열람서비스 제공과 열람에 필요한 장비 및 시설 관리 검수와 인력 관리
전시 서비스		- 자원을 활용한 상설전시, 기획전시, 체험형 전시, 외부 전시 등 다양한 전시를 기획하고 운영하며, 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검수와 인력 관리
온라인서비스		- 온라인 서비스의 기획 및 운영과 이에 필요한 전문 인력 개발 및 관리
콘텐츠개발 문화·교육 프로그램		- 소장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기획하고 제공하는 전반 업무 이행과 문화·교육 프로그램 개발·제공 - 이용자 요구 분석, 콘텐츠 주제 발굴, 콘텐츠 개발 계획 수립, 콘텐츠 개발·제공, 평가·보완 이행 등 콘텐츠 개발의 워크 플로우 개발 - 이용자별 다양한 문화·교육 프로그램 주제 개발, 전문인력 인프라 형성, 프로그램 이행 및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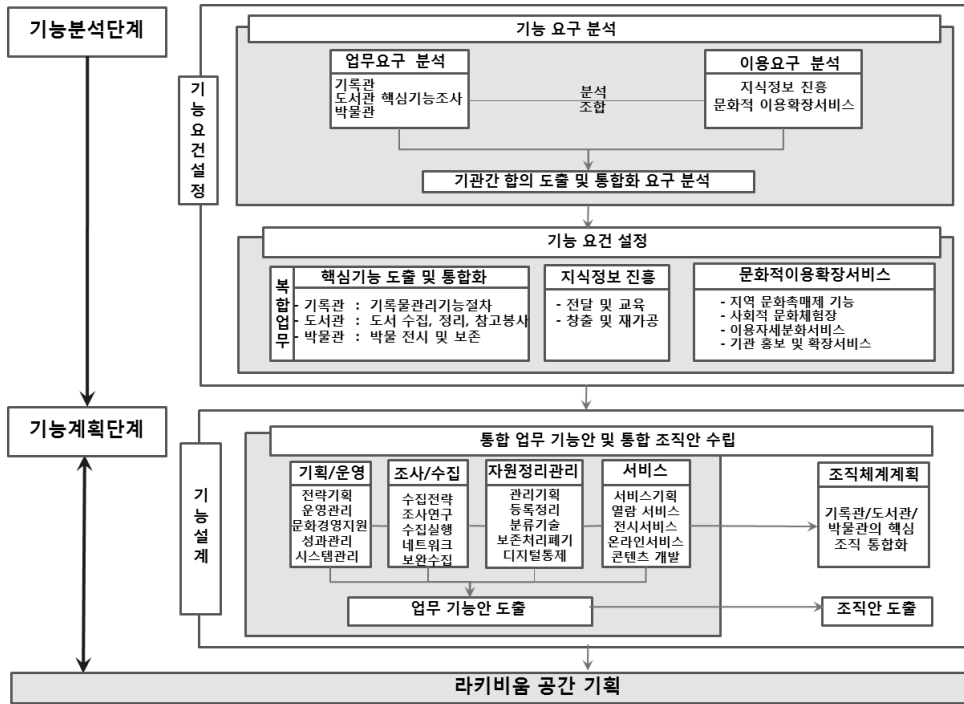
3.3 라키비움 기능 계획의 절차

본 연구에서는 기록관과 도서관, 그리고 박물관의 복합 기능 분석을 통해 라키비움의 기능요건을 설정하고 각 기관의 기능들을 수렴하여 라키비움의 기능을 계획하여 설계하기 위한 단계별 절차를 제안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기능분석 단계로 라키비움에 요구되는 기능을 분석하고 설정하기 위해 기록관, 도서관, 박물관의 핵심 업무와 유사 업무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라키비움에 적용할 기능요건을 파악하였다. 즉 기록관, 도서관, 박물관 각각의 고유 업무를 확인하였고, 여기에 최근 문화정보기관의 서비스 변화와 발전의 추세를 반영한 기능을 파악하였다. 이를 토대로 라키비움의 업무와 서비스에 적용할 기능요건을 범주화하였다. 기록관, 도서관, 박물관의 고유 기능으로부터는 라키비움의 복합정보 제공의 기능요건을 도출하였고, 최근 세 기관에서 이용자 서

비스로 이행되어 온 유사 기능을 통해서도 라키비움에 요구되는 지식정보의 진흥 기능과 문화적 이용확장서비스 기능의 구성 요건을 파악하였다.

두 번째는 기능 계획 단계로, 여기서는 앞에서 분석한 기능요건을 기반으로 통합 업무 기능을 구성하였다. 라키비움 통합 기능 계획은 앞서 도출한 라키비움 업무 기능의 요건과 서비스 기능의 요건을 수렴하는 기능으로 구성하고, 이어 각 기능의 업무 프로세스에 의거하여 대 기능별 세부 기능을 제안하였다. 이에 따라 라키비움의 전체 업무 프로세스를 구성하는 기획·운영 기능, 조사연구·수집 기능, 자원관리·정리 기능, 서비스 기능의 대 기능과 이들의 세부 기능을 도출하여 라키비움의 통합 업무 기능도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가 제시한 라키비움의 기능 계획의 개발을 위한 전반적인 절차를 도식화 한 내용은 <그림 4>와 같다.



〈그림 4〉 라키비움의 공간 측면에 대한 기능 계획 개발 절차

4.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라키비움이 문화적 복합기관으로서 조직과 기능을 이루기까지 기록관과 도서관, 그리고 박물관의 구성 요소를 유기적으로 융합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전제 하에, 기록관, 도서관, 박물관의 기능 요건을 비교·분석하고 이에 기반하여 기능 계획을 도출하는 절차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라키비움의 설계 뿐 아니라 유사 정보기관의 시설이나 통합, 또는 타기관의 기능을 부분적으로 통합한 기록관, 도서관, 박물관 등 단일 정보기관의 기능 계획에도 활용될 수 있으리라 본다. 그러나 여기서 제시된 방법론은 구축 대상 기관의 특성과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대상 기관이 기록관 중심이 아닌 전시 서비스 중심의 기관인 경우나 도서관과 기록관의 통합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각각 다르게 활용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최근 세계적인 문화정보기관의 복합화 추세를 반영하는 동시에 이용자에 대한 적극적인 서비스 요구에 부응하는 효율적인 기관의 기능 모형을 제안하였다는 데에 의의를 가진다. 더불어 현재 국내 도서관, 박물관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모색과 대안을 제시하였다는 데에서 또 중요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안된 문화정보기관의 복합적 기능을 반영한 기능 계획은 하나의 기관에서 타 기관의

기능을 통합하여 제공할 수 있는 방안과 효율적인 방법론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경제적으로도 비용 절감의 효과를 불러올 수 있으리라 전망해본다.

그러나 본 연구가 제시한 안은 라키비움의 조직과 공간에 대한 전체적인 기획에 구체적으로 반영되어 진행되고 평가되어야 가치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안된 절차의 현실적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라키비움의 업무 기능과 조직에 대한 계획이 마련되어 기관의 설립 취지와 자원 및 조직, 그리고 주요 이용자 요구와 지침 등을 교차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국내에서도 해외에서도 라키비움의 구축이 실현된 바가 없기에 실제 구현 절차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변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 하였다. 그

러므로 이에 대해서는 향후 다양한 복합적 문화정보기관이 설립되게 되면 이에 대한 실제적 검증 방안을 제시하는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는 기록전문가의 입장에서 도서관과 박물관의 기능을 분석하였으므로 실무적 지식과 경험 없이 문헌 중심의 연구를 진행하였다는 한계를 가진다. 이러한 도서관, 박물관과 관련한 학제 간 연구는 향후 문헌정보학과 박물관학 등 관련 학계의 관심과 협업을 통해 보다 진전되기를 희망한다.

본 연구가 제시한 라키비움의 기능 계획은 '라키비움의 공간 기획'에 필요한 절차의 일부로 제안된 것이다. 그러므로 라키비움의 공간과 조직 인프라 설계를 위한 기획 절차 및 타당성 검토에 대해서는 추후 다른 연구에서 다루기 위해 남겨둔다.

참 고 문 헌

-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1장 제3조(정의). 국립국악원. 2010. 『국악아카이브 구축 전략 수립 연구』. 서울: 국립국악원. 연구보고.
- 국립예술자료원. 2010. 『예술자료관리 전문화 방안 연구』. 서울: 국립예술자료원. 연구보고.
- 국회도서관. 2010. 『의정활동 관련 기록 통합관리 기본계획 수립』. 서울: 국회도서관. 연구보고.
- 권남익. 1996. 『공공도서관의 문화행사실태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광주전남지역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대학원.
- 김용원. 2007. 『도서관 기능의 재구성을 통한 프로그램 복합화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건축도시대학원.
- 김유승. 2012a. 문화유산기관의 협력정책에 관한 연구 - 국회 라키비움에 대한 전망을 중심으로. 『한국비블리아학회, 한국기록관리학회 2012년도 춘계공동학술대회』. 2012년 5월. 서울: 한국비블리아학회, 한국기록관리학회.

- _____. 2012b. 국회 라키비움의 전망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2(2): 93-115.
- 김익한. 2004. 기록관리를 기반으로 한 통합형 지식관리시스템 구축 방향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21(1): 153-167.
- _____. 2011. 대통령기록관이 추구해야 할 그린 드디자인. 『대통령기록관 발전방안 세미나』, 2011년 6월 15일. 서울: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 김진호. 2009. 『어린이박물관의 전시공간 규모 산정계획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국민대학교 디자인대학원.
- 김형석. 2008. 『기초자치단체의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설치모형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의국어대학교 대학원.
- 김홍렬. 2004.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도서관의 문화 및 교육적 기능 확대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5(2): 339-360.
- 나원경. 2010. 『박물관 업무의 특성을 반영한 기록정보 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 대통령기록관 세종시 신설 공간 구성. [online]. [cited 2012.10.29]. <http://www.pa.go.kr/PMS/new2014/compose/compose_chart.html>.
-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2010a. 『라이브러리파크 공간구성 및 전시개념 설계 - 아시아문화정보원 상세업무프로세스 및 매뉴얼 개발연구』.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연구보고.
- _____. 2010b. 『아시아문화정보원 상세 업무프로세스 및 매뉴얼 개발 연구』.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연구보고.
- 문화체육관광부. 2011. 『2011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 박성진. 2008. 근대 공문서 소장 현황과 협력 과제: 박물관·기록관·도서관을 중심으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8(2): 75-88.
- 박재용, 조윤희. 2004. 도서관/박물관 협력체제 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8(2): 315-333.
- 박찬승. 2000. 외국의 지방기록관과 한국의 지방기록자료관 설립방향. 『기록학연구』, 창간호: 107-135.
- 박형식. 2010. 『평생교육기능 확대를 위한 박물관내 문화시설 운영 체제』. 박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 배진희. 2004. 『문화관광자원의 결합을 통한 지역박물관 활성화 방안 - 여주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 병무청. 2010. 『병무행정기록전시관 스토리보드 연구용역』. 서울: 병무청. 연구보고.
- 서은경, 정경희, 최상희. 2006. 이용자 중심의 기록정보 활용 및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6(1): 65-92.
- 서혜란. 2005a. 기록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위한 도서관과 기록관의 협력. 『한국비블리아학회지』, 16(2): 25-41.
- _____. 2005b. 도서관과 기록관의 협력방안 모색. 『한국비블리아 발표논집』, 13: 111-129.
- 안자영. 2008. 『지방기록물관리기관 공동 설치 모형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남대학교

- 일반대학원.
- 윤희운. 2008. 『대학도서관경영론』. 서울: 태일사.
- 이보아. 2001. 『박물관학 개론』. 서울: 김영사.
- 이승근. 2010. 『지역사회 정보화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기능 확대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청주대학교 대학원.
- 이승휘. 2010. 『국회기록보존소의 역할과 위상 확립. 제1회 국회기록보존소 발전전략 세미나』. 2010년 8월 24일. 서울: 국회도서관.
- 이영학. 2010. 기록문화와 지방자치. 『제10회 한국기록학회 심포지엄 자료집 지방의 기록관리와 기록문화운동』. 2010년 6월 11일 서울: 한국기록학회.
- 장우권. 2009. 공공도서관의 지역문화콘텐츠의 관리와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3(1): 271-292.
- 장혜란, 이명희. 2008.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을 위한 이용자서비스 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25(3): 321-338.
- 전현수. 2004. 지방기록보존소 설치운동과 대학의 역할. 『영남학』, 6: 219-245.
- 전홍필. 2009. 『아카이브의 공간구성체계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대학원.
- 정동열, 조찬식. 2007. 『문헌정보학총론』.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정종기. 2001. 지역사회개발 측면에서 노인을 위한 공공도서관의 프로그램 개발 확대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2(1): 53-71.
- 정현우. 2010. 『기록물관리기관의 전시교육서비스 제공방안』. 석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정보기록관리학과.
- 조윤희. 2008. 정보자원 공유를 위한 문화유산기관 협력 방안. 『한국비블리아학회지』, 19(2): 5-21.
- 조정인. 2011. 『대중음악 기록관의 구축과 기록관리』. 석사학위논문. 한신대학교 대학원, 기록관리학 전공.
- 지수걸. 2009.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립의 방향과 방법. 『기록관리법 10년 한국기록관리의 현황과 전망- 제9회 한국기록학회 학술심포지움』. 2009년 4월 3일. 서울: 한국기록학회.
- 최영실. 2012. 『기록관, 도서관, 박물관의 기능 융합에 의거한 라키비움 공간 기획 연구』. 박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 최재희. 2008. 국가차원의 문화유산기관 협력체 구성사례 및 시사점: 영국 MLA를 중심으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8(2): 61-74.
- 『한겨레신문』. 2008. '일단 짓고보자' ... 콘텐츠 없는 박물관 난립. 8월 10일.
- 한국기상기후아카데미. 2010.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과제발굴연구회 운영사업 기술기획보고서』. 서울: 한국기상기후아카데미.
- 한국도서관협회 도서관편람 편찬위원회. 2009. 『도서관편람』. 서울: 도서관협회.
- 한국문화정책개발연구원. 1995. 『공공도서관의 문화적 기능 활성화 방안』. 서울: 동연구원. 연구보고.
- 황금숙. 2008. 도서관에서의 통합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한

- 국도서관·정보학회지』, 39(3): 73-94.
- Ambrose, Timothy and Crispin Paine. 1993. *Museum Basics*. 이보아 옮김. 2001. 『실무자를 위한 박물관 경영 핸드북』 서울: 학교재.
- Cox, Richard J. 1992. *Managing Institutional Archives: Foundational Principle and Practices*. New York: Greenwood Press.
- Dupont, Christian. 2007. "Libraries, Archives, and Museums in the Twenty-First Century: Intersecting Missions, Converging Futures?" *Rare Books and Manuscripts Section(RBMS)*, 8(1): 13-19.
- Kuzyk, Raya. 2008. LJ Talks to Megan Winget, Who Studies Preservation of Online Games. *Library Journal*. 07/30/2008 [online]. [cited 2011.12.3]. <<http://www.libraryjournal.com/article/CA6582968.html>>.
- International Council on Archives(ICA). 2002. 『기록보존소의 기록관리』. 오향녕 옮김. 서울: 진리탐구.
- Library and Archives Canada. [online]. [cited 2012.11.29]. <<http://www.collectionscanada.gc.ca/about-us/012-300-e.html>>.
- Marty, Paul F. 2009. "An Introduction to Digital Convergence: Libraries, Archives, and Museums in the Information Age." *Museum Management and Curatorship*, 24(4): 295-298.
- Museum, Libraries and Archives Council. [online]. [cited 2012.10.11]. <http://www.mla.gov.uk/news_and_views/press_releases/2011/responsibilities_transfer>.
- Pugh, Mary Jo. 1992. *Providing Reference Services for Archives and Manuscripts*. 설문원 옮김. 2004. 『기록정보서비스』. 서울: 진리탐구.
- Rayward, W. B. 1998. "Electronic Information and the Functional Integration of Libraries, Museums and Archives." In: Higgs E. *History and Electronic Artefacts*, 207-226.
- RLG. 2005. Libraries, Archives, & Museums - Three-Ring Circus, One Big Show?. RLG Members Forum. The Minnesota Historical Society in St. Paul, on July 12-14, 2005. New York: RLG.
- Yarrow, Alexandra, Barbara Clubb, and Jennifer-Lynn Draper. 2008. *Public Libraries, Archives and Museums: Trends in Collaboration and Cooperation*, IFLA Headquarters (IFLA Professional Reports No. 108)
- Zorich, Diane, Günter Waibel, and Ricky Erway. 2008. *Beyond the Silos of the LAMs: Collaboration Among Libraries, Archives and Museums*. OCLC Programs and Research. Dublin, Ohio.

